

광주 경실련, 민간공원 특례사업 검찰 고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부정·비리 의혹 있었다”

감사원도 시·도시공사 감사...불법 확인뎐 사업 무산 우려

광주시에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2단계)개발사업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 경실련은 17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비리 의혹이 있다며 광주주지검에 광주시를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비리 의혹 등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의 엄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

제안서 평가점수 유출 ▲규정과 달리 탈락업체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 감사 실시 배경 이유 ▲도시공사가 중앙 1공원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우 등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도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월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지역 8개 환경단체는 중앙공원 1·2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부당·위법한 행정행위가 있었다며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직원들을 파견해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적절했는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유착)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사업 추진과정의 불법·비리 의혹이 드러나면 향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2020년 6월 공익입찰제 시행에 맞춰 진행 중인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현재 우선사업자를 선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결과 불법성이 확인되면 협상자 선정 자체가 무산돼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분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사업 전반에 불거진 의혹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업 평가계획 및 계약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은 경징계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말 호남의병 최대 격전지 어등산에 기념관 추진

광주시 용역 상반기 마무리 370억 들여 추모관 등 건립

한말 호남 의병 최대 격전지인 광주 어등산에 의병기념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호남의병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업비 270억~370억원을 들여 5000여㎡ 부지에 추모관, 기념관, 교육문화관, 편의시설 등 5개 동 규모의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어등산 일원을 비롯해 호남 의병활동지인 광주 남구 대촌 일대가 거론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말 호남에서 봉기한 의병은 전국 의병의 60%에 달하는 4만4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일제 군경과 131회 교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등산에서 일제 군경과의 전투에서 60여명이 전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에는 후손들

이 남긴 비석 외에는 별다른 기념물이 없는 형편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8월 한말 의병기념사업 조례안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2016년 11월부터 7개월 간 호남의병기념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해 전서관, 체험관, 테마파크형의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의병기념관 건립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2010년 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 매년 6월 1일 정부 주최로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광주 광산구는 2009년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10월 어등산박산마을에서 ‘의병 추모제 및 어등산 의병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무장(광산2) 의원도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어등산에 의향광주의 상징인 호남의병기념관과 기념공원을 조성해 호남 구국의 역사를 알리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대구시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 개최

18~19일 무등경기장 일원서

광주시와 대구시가 스포츠를 통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동서 간 화합을 도모한다. 광주시는 18일부터 이틀간 무등경기장 등 광주 일원 6개 경기장에서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는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가 맺은 ‘달빛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 2013년 ‘달빛야구제전’을 시작으로 격년제로 서로 초청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두

도시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와 동호인 315명이 참가해 하키, 유도, 게이트볼, 정구, 테니스, 티볼 등 6개 종목에서 경기를 벌인다.

대구 선수단은 18일 광주에 도착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탐방 후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리는 환영연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경호 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동서 간 화합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달빛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문화전당 신 고전 판타지 R.E.X 쇼케이스 리허설 한반도 고대신화와 첨단 무대기술이 결합한 신 고전 판타지 R.E.X(불멸의 힘) 쇼케이스를 이틀 앞둔 17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화려한 조명과 함께 드레스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오는 19일과 20일에 열리는 쇼케이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무대 기술을 활용한 대형 융·복합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다. 객석과 무대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 드라마틱한 연기와 한국 전통극에, 마살아트, 아크로바틱, 플라잉 와이어 연기를 통해 마법 같은 장면 전환이 관객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본 공연은 올 12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민생경제 현장 찾아 기업 애로 직접 챙긴다

평동산단 기업대표 등 첫 간담회 한달간 경제인·노동자 목소리 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민생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기업 애로 사항 등을 직접 챙긴다. 이는 그동안 광주형일자리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은 성과를 거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시장이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행보로

풀이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평동산단단지 기업대표·노동자들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 간 민생경제 현장을 찾아 경제인들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제고용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머리를 맞췄다.

기업인들은 ▲업종 불일치에 따른 첨단 국가산단단지 입주 애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제고 및 지역제품 우선 구매 ▲현장인력 공급 문제 및 대학과 연계한 적극 일자리 정책 ▲용도지역의 견제를 확대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또한, R&D 지원을 받은 업체에 디자인 개발비 및 마케팅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제조업 성장 견인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환경설비 기준 강화에 따른 애로 사항 등을 토론했다.

이 시장은 “전통시장, 골목상가 등 지역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대내외적인 환경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어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기업에는 적정 수익 보장이라는 산업평화도시를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의 민생경제 현장 방문은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수출·투자, 사회경제, 상공인 등 각 분야와 자동차, 금형, 가전, 광산업, 의료 등 업종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역 정가

박미정 시의원 “중기 노동자 삶의 질 개선 정책 마련” 촉구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인 박미정(민·동구 2) 의원은 17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노사상생 도시광주’를 위한 산단단지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터를 떠나지 않고 삶을 꾸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단 내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거점별 쉼터 조성 ▲아침식사를 위한 공공형 조식 공급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거점별 쉼터 조성은 현재 운영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 2곳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형 조식 제공은 수요의 면밀한 분석과 각 산단 관리소 및 산단별 사용자협의회 등과 협의를 한 뒤 조정협의회의 안건으로 건의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중치 5.0 배)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산업부 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남·전북·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약속 체결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약속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시군에 예산장려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영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